

더 넓은 세상의 복지과 만난다

사회복지 선진 현장 실천기술 나눔대회 개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1월 2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2006년 사회복지 선진 현장 실천기술 나눔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나눔대회는 올해 해외연수 사업의

결실로 2006년 사회복지 지도자 및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단원들이 선진 사회복지 국가를 탐방하며 익힌 생생한 사회복지 기술 및 정보를 현장 사회복지사들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10개의 해외연수팀과, 지도자해외연수팀 총 11개 팀의 발표로 4시간여에 걸쳐 연수결과발표 및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사회복지지도자 해외연수팀 참가자로 대표 발표한 이홍직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10월 21일에서 31일까지 진행된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남가주 대학에서 진행된 연수 내용 및 기관에 대한 소개를 마치며 “비록 남가주대학교 교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큰 뜻을 품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아직도 강의실에서 들었던 네트워크, 파트너십, 펀드레이징 등의 단어들의 생각과 우리나라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다”고 연수의 소감을 밝혔다.

이어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신장애인을 위한 통합적 사례관리 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연수를 다녀온 미국정신보건팀의 발표가 이어졌다.



늘푸른자활의집 이천근 사회복지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정신보건사업의 특징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카운티정부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혼재형으로 중앙정부 정신보

건예산의 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을 주정부에서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사회복지사들이 만성정신장애인의 기능회복을 위한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대안모색의 도전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정신보건을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사업은 지역사회를 건강하는 만드는 중요한 투자”라고 말했다.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노인복지 연수를 다녀온 최영대 성내종합사회복지관 부장은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및 노인요양보장제도,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스위스의 사회보험 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퇴직전문인력의 유무급자원봉사 조직을 통한 노인인력의 사회환원이 필요하며 한국의 사회복지사도 이제는 복지경영에 대한 마인드 도입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질적 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001년부터 삼성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06년 사회복지사·지도자 해외연수에는 총 82명이 참가해 미국, 영국, 호주, 유럽 등의 선진 사회복지 기술 및 정보를 익히고 돌아왔다. ■